

- 주요 뉴스: 미국 1월 PCE 물가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우려 증폭 가능성 등에 주목
 -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 정찰풍선-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의견 대립
 - 중국 금융당국, 내년부터 은행 자본규모 따라 차별적 규제 적용할 방침
 - 일본은행, 4월 디지털 엔화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금리인상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3%],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8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감소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 지수는 일부 양호한 기업실적, 경기침체 회피 예상 등으로 1.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전망 강화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2% 상승, 엔화는 2.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8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2.6% 상승, 한국 CDS 상승

		2/17일	2/10일	전주말대비			2/17일	2/10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079.1	4,090.5	-0.28%	국채 금리 10y	미국	3.81%	3.73%	8bp
	유럽	464.30	457.89	1.40%		독일	2.44%	2.36%	8bp
	중국	3,224.0	3,260.7	-1.12%		영국	3.52%	3.40%	12bp
	일본	27,513	27,671	-0.57%	CDS 5y	한국	43bp	42bp	1bp
	한국	2,451.2	2,469.7	-0.75%		중국	65bp	61bp	4bp
환율	달러지수	103.86	103.63	0.22%	위험 지표	EMBI+	393	384	9bp
	유로화	1.0695	1.0678	0.16%		VIX	20.02	20.53	-2.48%
	엔화	134.15	131.36	-2.08%		WTI유	76.34	79.72	-4.24%
	위안화	6.8686	6.8145	-0.79%	원자재	구리	410.9	401.7	2.29%
	원화	1,299.5	1,265.2	-2.64%		금	1,842.4	1,865.6	-1.2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월 PCE 물가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우려 증폭 가능성 등에 주목

- 2/24일 1월 PCE 물가가 발표될 계획.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1월 PCE 물가의 월간 상승률은 전월비 높은 수준(0.1%→0.5%)을 나타내고, 연간 상승률은 전월 대비 하락(5.0%→4.9%)할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고 연준이 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 이는 증시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
- 1월 근원 PCE 물가의 경우 월간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올라갈(0.3%→0.4%)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상승률은 하락(4.4%→4.1%) 전망. 공급망 개선과 우호적 기저 효과에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멈춘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Bloomberg Economics)
- 한편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현재 4.50%~4.75%)는 6월에 정점(5.25%~5.50%)을 형성한 후 11월까지 해당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 다만 12월에는 0.25%p 금리인하가 시작되면서 하락(5.00%~5.25%)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2/22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도 관심 필요. 2월 FOMC에서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0.50%p 인상을 주장했기에, 이번 공개는 향후 연준의 통화긴축 강도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 정찰풍선·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의견 대립

-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정찰풍선 운용은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 반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정찰풍선 파괴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무력행위라고 반박. 또한 자국은 평화의 편에 있지만 일부 국가는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

■ 미국 1월 수입물가, 연간 상승률은 2년래 최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

- 1월 수입물가는 전월비 0.2% 내려 작년 12월(-0.1%) 대비 하락폭 심화. 연간 기준으로는 0.8% 상승했지만, 이는 '2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이 반영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EU 측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하여 의견 교환

- 타이 대표는 EU의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과 만나 양측은 공동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관련 긍정적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 다만 EU는 계속해서 IRA의 수정을 통해 생산지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차별화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 Allianz의 El-Erian,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은 심각한 경제 충격 발생 시 가능

- Allianz의 유명 투자가 Mohamed El-Erian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는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 연준은 과도하게 높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BofA의 Michael Hartnett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상반기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경기 경착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S&P500 지수는 이를 반영하여 3월에 최근 수준(4079.1)보다 7% 낮은 380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금융당국, 내년부터 은행 자본규모 따라 차별적 규제 적용할 방침

-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업은행의 자본관리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 이에 따르면 자본규모와 대외부채 비중에 따라 은행의 자본요건 및 세부 자본항목 공개 의무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 또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 설정 기준도 세분화
- 2/17일 인민은행은 7일물 레포시장에서 '04년 이후 일일 기준 최대 규모인 632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 이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용수요 증가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 평가

■ 일본은행, 4월 디지털 엔화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 이번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지속될 전망. 우치다 신이치 이사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엔화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 다만 실제로 소매점포와 소비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증시 프레지던트데이 휴장,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지속 전망,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초래할 소지 - Economist

(Inflation will be harder to bring down than markets think)

- G7 중 6개국의 실업률이 금세기 최저 수준(혹은 근접)을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크게 과열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기초적 인플레이션 해소는 어려운 상황. 이에 최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낮아지고 고금리 유지 전망이 강화
- 역사적으로 금리인상 사이클이 연착륙으로 종료된 사례는 드물며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상당. 특히 미국 달러화 강세가 동반될 경우 여타 국가들의 경기하강 압력은 더욱 증대될 우려
-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지거나 물가상승 억제를 포기한다고 해도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 고금리 지속, 경기침체, 혼란스러운 정책 전환 등의 사유로 시장은 험난한 조정을 거칠 가능성

■ 미국과 유로존의 임금상승률 둔화, 물가하락에 긍정적으로 작용 - WSJ

(Workers' Pay Globally Hasn't Kept Up With Inflation)

- 미국과 유로존의 명목임금 상승세는 작년 중반 이후 약화되고 있으며, 임금과 물가의 연쇄 상승 신호도 부재. 경제학자들은 에너지 가격 하락, 공급망 충격 완화에 더해 임금상승률 둔화를 고려하면 주요국 물가가 작년에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캐나다 중앙은행은 임금상승률 둔화를 반영하여 금리인상 중단 결정
- 한편 임금 상승세의 약화는 성장둔화 전망, 해고 등 고용안정 우려 증가 등에 기인. 또한 팬데믹 이후 감소했던 주요국 노동인구의 회복, 저축감소에 따른 구직 증가, 이민자 확대 등도 노동시장 공급 부족을 완화시키는 요인

■ 글로벌 투자등급 회사채 매입 증가, 수익성과 안정성 동시 추구 등이 반영 - Financial Times

(Investors pour record sums into high-grade corporate bonds)

- EPFR에 따르면, 금년 전세계 기준으로 투자자들은 190억달러 규모의 투자등급 회사채를 매입. 이러한 현상은 회사채 수익률이 예전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확정하려는 심리 등이 주요 원인
- 물론 투기등급 회사채의 금리가 투자등급보다 높지만, 다가올 경기둔화 기간 동안 채권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량 회사채가 더 선호되는 상황. 다만 최근 수일간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우량 회사채라 하더라도 예상 밖의 시장금리 상승 리스크에 노출

■ **차기 일본은행 총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이 중요 - 블룸버그**
(Welcome to the Toughest Job in Central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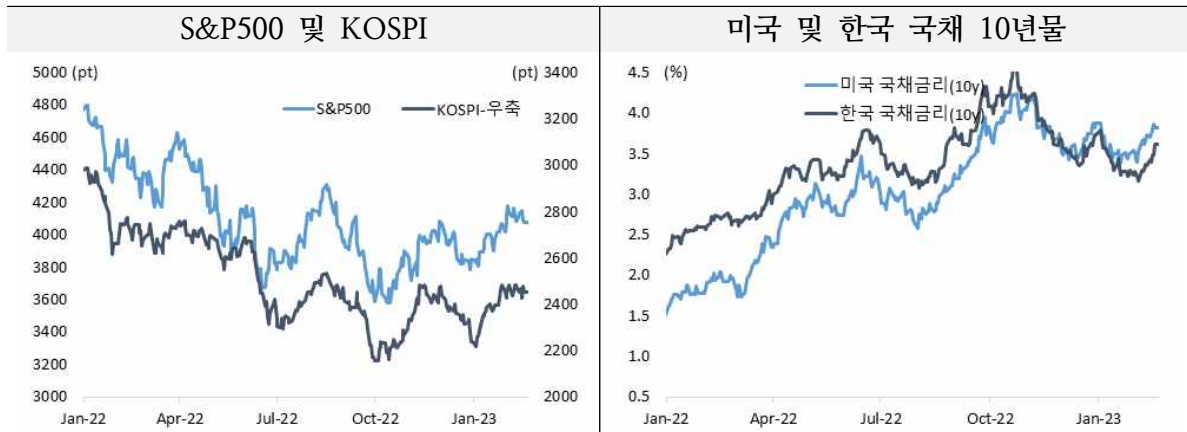
- 일본 정책당국은 그동안 수익률곡선제어(YCC)를 통해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70%까지 상승. 그러나 추가적인 공공부채 증가는 재정지속성 관련 의구심에 따른 국채 수익률 상승 → 조달비용 증가 →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
- 그러나 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점진적인 수익률 상한 상향 조정 또는 자산매입으로의 전환이 요구. 또한 추가적인 공공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재정정책도 필요
- 이에 더해 만성적인 국내 수요 부족 문제 해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저축 축소, 생산성 향상, 노동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이는 통화정책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기에 차기 일본은행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과제

■ **정찰풍선 사건,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 강화 등을 초래할 전망 - 블룸버그**
(China's Balloon Fiasco May Accelerate US Decoupling)

■ **중국의 경제정책, 인프라 건설 확대라는 기존 전략 반복은 성장에 부정적 - 블룸버그**
(China's Old Playbook Is Back. That's Bad News)

■ **영국 경제, 경기침체 발생해도 경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 - Financial Times**
(UK's resilient economy points to a mild rec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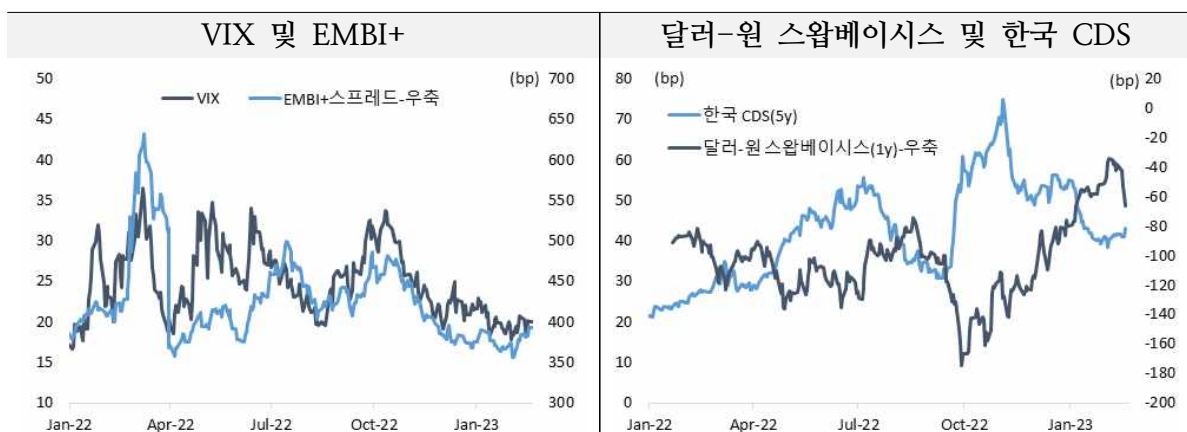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